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4

▶ 85회 예고
아쇼까왕은 붓다가 성도한 삡팔라나무 아래서 하룻밤을 보낸다. 우빠굽따는 붓다가 깨달은 십이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한다. 우빠굽따의 제안에 따라 순례 일행은 네란자라강으로 간다. 그때 아쇼까왕은 수자따탑을 세우도록 명한다.



순례일행, 삡팔라나무를 참배하다

네란자라강과 모하나강 사이에 있는 장군촌은 마을이라기보다는 큰 농원이었다. 우루웰라 고행촌과는 아주 대조적이었다. 우루웰라 집들은 대부분 거적때기를 두른 움막들이었고, 네냐니가마(장군촌)에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 저택도 있었다. 모하나강 강변의 모짜림마을도 우루웰라와 달리 부유했다. 모짜림마을에는 농수(農水)로 사용하는 무짤린다(Mucalinda)연못도 있었다.

네란자나강 너머 네냐니가마에서 이동법당 수레는 또 멈추었다. 우빠굽따가 아쇼까왕에게 제의했다.

"대왕님이시여, 이곳 네냐니가마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러시오?"

"태자께서 6년 고행하셨던 고행림도 있고, 수자따 처녀에게 유미죽 공양을 받으신 곳인 아자빨라나무도 있습니다."

우빠굽따는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를 줄여서 아자빨라나무라고 했다. 우빠굽따에게는 태자가 깨달음을 이룬 보드가야의 삡팔라나무도 성스러웠지만, 태자의 6년 고행을 지켜보았던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도 소중했던 것이다.

"장로시여, 태자가 유미죽 공양 받은 이야기를 설해주시오."

"알겠습니다. 대왕님이시여."

우빠굽따는 싯다르타 태자가 고행림에서 6년 고행을 끝낸 뒤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태자가 네란자라강 모래밭으로 내려가 목욕을 한 뒤 분소의를 입고 네냐니가마 농원에 있는 저택으로 탁발을 나갔던 것이다. 저택의 주인인 장군은 1천 마리가 넘는 소와 염소를 가지고 있었고, 소젖과 염소젖을 짜는 어여쁜 딸 수자따가 있었다. 수자따는 하녀들과 함께 새벽마다 소젖을 직접 짰다. 그런 뒤 신선한 소젖에 쌀이 들어간 유미죽을 쑤었다. 아침마다 수행자들에게 보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날도 수자따는 유미죽을 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죽 위에 만(卍)자 문양이 나타났다. 수자따는 '상서로운 문양이 나타난 이 죽을 먹는 수행자는 붓다가 될지 모른다.' 라고 생각했다. 수자따는 황금바리때에 죽을 담아놓고 수행자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침이 다 지나가는데도 단 한 사람의 수행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수자따는 조급한 마음에 시녀 웃따라를 밖으로 보내 수행자가 오는지 살펴보라고 시켰다. 이윽고 웃따라를 따라 들어온 싯다르타 태자는 수자따가 만든 죽을 공양받았다. 죽을 끓이는 동안 만(卍)자 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은 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 죽으로 힘을 얻은 나는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태자는 수자따의 공양을 받고 나서는 감사의 표시로 합장을 했다. 태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수자따가 말했다.

"황금바리때를 드리겠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비로소 태자는 한 벌의 누더기 옷과 한 개의 바리때를 갖추었다. 네냐니가마 농원에서 나온 태자는 네란자나강 강변으로 가서 수염을 깎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런 뒤 강물에 머리와 얼굴을 씻었다. 이를 지켜본 다섯 명의 수행자는 극도로 실망했다. 태자가 고행을 극한까지 밀고 갈 때만 해도 깨달음이 가까워졌다고 기대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었다.

그들은 태자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으므로 앞으로는 스스로 알아서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르나트(녹야원)로 떠나버렸다. 그러나 태자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6년 고행기간에 우기 때마다 비를 피해 정진했던 쁘락보디산 동굴을 한 번 둘러본 뒤 모짜림마을에서 북쪽 저편에 있는 삡빨라나무를 향해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태자는 걸어가는 도중에 소년 목동 솟티야(Sotthiya)가 보시하는 꾸사(Kusa, 길상초)풀 한 단을 받았다. 드디어 태자는 삡팔라나무 밑에서 동쪽을 향해 꾸사풀을 깔고 앉아 맹세했다.

'여기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리.'

삡팔라나무 아래서 결가부좌를 튼 태자는 자신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마라 파피야스를 불러냈다.

'욕계의 왕은 마라 파피야스다. 그가 모르는 사이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떳떳치 못한 일이다. 마라를 불러내 나를 시험해보자. 마라를 항복시키면 욕계의 신들은 모두 내 가르침에 고개를 숙일 것이다.'

욕계의 왕 마라는 세 명의 딸을 보내 태자를 유혹했다.

"꽃 피는 봄이군요. 나무와 풀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요. 사람에게 봄이 있다면 젊은 시절일 것이에요. 젊음은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죠. 당신은 젊고 풋풋하군요. 우리들이 어여쁘지 않은가요? 싯다르타여, 우리와 함께 놀아요."

태자는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부드러운 말씨로 그녀들을 타일렀다.

"그대들의 몸은 비록 아름답지만 온갖 악으로 더러워져 생로병사가 따른다. 손에는 팔찌, 귀에는 귀걸이를 흔들면서 교태 섞인 웃음으로 욕망의 화살을 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대들의 욕망을 독약으로 여긴다. 칼날에 발린 꿀은 혀를 상하게 하고 사악한 욕정은 독사의 머리와 같으니 내 이미 모든 유혹을 뛰어넘었다. 그대들은 곧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물러갈 것이다."

그래도 마라의 세 딸들이 물러가지 않자 태자가 다시 말했다.

"그대들이 천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까닭은 옛날에 선업을 한 번 닦았기 때문이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 어서 물러가라."

태자의 이 한 마디에 마라의 세 딸들은 모두 추한 노파로 변해 탄식하며 물러갔다. 그러자 마라는 화가 나 삡팔라나무를 향해서 태풍과 함께 폭우를 쏟았다. 뿐만 아니라 악귀를 보내 온갖 악행으로 태자의 선정을 방해했다. 그래도 태자가 삡팔라나무 아래서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마라가 직접 나타났다.



"사끼야족의 아들, 싯다르타여. 그대는 속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대에게는 전륜성왕의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어 사람들을 지배하고 오감의 쾌락이 주는 미묘한 맛을 마음껏 즐기라. 사끼야족의 아들이여! 그대가 추구하는 도(道)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피로만 더할 뿐임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이에 태자가 말했다.

"마라여, 그대는 단 한 번 공양으로 욕계의 왕이 되었소. 반면에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애를 두고 내 몸까지도 중생을 위해 베풀어 왔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붓다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오."

마라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전생에 내가 공양한 것은 방금 그대가 말한 바와 같소. 그런데 그대가 전생에 공양한 것을 증언할 자는 아무도 없소. 그러니 이 승부는 그대가 진 것이오."

태자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대지에 댄 채 말했다.

"만물이 의지하는 대지여, 움직이는 것이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에 공평한 대지가 나를 위해 진실한 증인이 될 것이오. 자, 대지여. 나를 위해 증언해다오."

그러자 대지의 여신인 수타바라가 나타나 증언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인간과 하늘의 스승이 되실 분입니다."

결국 태자는 마왕 마라를 굴복시키므로 해서 선정에 들 수 있었다. 첫 번째 선정과 두 번째 선정, 세 번째 선정, 네 번째 선정에 차례로 들었다. 그날 밤 초저녁에는 전생을 아는 지혜, 즉 숙명통을 얻어서 윤회하였던 수많은 생을 돌이켜 기억할 수 있었다.

한밤중에는 무량한 중생들이 업에 따라 오고가는 것이 보이는 천안통을 얻었다. 또한 번뇌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혜가 나타났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던 무명에서 벗어났다. 고통의 원인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보니 모든 고통에는 무명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른바 십이연기(十二緣起)의 도리를 관했다. 붓다가 게송으로 읊조렸다.

이것이 존재하면 저것 또한 존재한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 또한 생긴다.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 또한 소멸한다.

마침내 붓다가 되는 생사해탈의 순간이었다.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내 마지막 생애이고, 앞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사윤회의 지배를 벗어난 붓다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깨달음을 확인한 뒤 선언했다.

다시 태어나야 할 일은 끝났다.
높은 수행을 하여 마쳤다.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다.
해탈을 얻기 위해
다시 더 수행해야 할 일은 없다.
이러한 것을 스스로의 지혜로 알았다.

새벽이 되어서는 인간의 미세한 고뇌까지 말끔히 씻어버리는 누진통을 얻었다. 먼동이 트기 전, 샛별이 반짝이고 있을 때였다. 그날 아침에도 수자따는 삡팔라나무 주변을 청소하기 위해 시녀 웃따라를 보냈다. 그러나 웃따라는 어제와 달라진 태자의 모습에 놀라 집으로 돌아와 수자따에게 알렸다. 잠시 후 웃따라를 앞세우고 삡팔라나무까지 달려온 수자따는 깨달음을 얻은 붓다에게 유미죽을 올리며 기뻐했다.

"웃따라여, 내 공양을 받은 분이 세상에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네란자라강에서부터 걸어서 온 아쇼까왕은 삡팔라나무 주위를 합장한 채 돌았다. 우빠굽따와 마힌다, 상가밋따, 악기브라흐마, 수마나는 삡팔라나무 앞에서 연신 오체투지하며 참배했다. 이윽고 우빠굽따가 그 옛날 붓다처럼 삡팔라나무 밑에서 결가부좌를 틀었다. 아쇼까왕도 우빠굽따와 같은 자세로 앉았다. 정비 아상디밋따는 감격하여 소리 내어 흐느꼈다. 아쇼까왕도 삡팔라나무와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하늘로 치솟은 삡팔라나무의 키만큼이나 신심이 솟구치고, 무성한 삡팔라나무 이파리들만큼 담마에 대한 확신이 섰다. 아쇼까왕이 우빠굽따에게 말했다.

"나는 이곳의 불탑을 두 배로 키우고 석주를 세우겠소."

"석주에는 어떤 칙령을 새기시겠습니까?"

"싯다르타 태자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가장 성스러운 곳이라는 글을 새길 것이오."

"준비해온 석주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곳 부근에 있는 사암으로 기둥을 만들어 세우시겠습니까?"

"이곳의 사암이 좋을 것 같소. 가지고 온 석주보다 더 컸으면 좋겠소. 여기서 더 순례할 곳이 있소?"

"그렇습니다. 붓다께서 이곳에서 사르나트로 떠나시어 고행림에서 함께 수행했던 다섯 비구에게 깨달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곳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오?"

"10요자나쯤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는 거리와 비슷하오. 빠딸리뿌뜨라에서 가지고 온 석주는 사르나트로 보내시오. 때를 보아 그곳으로도 순례하겠소. 단 이곳의 불탑은 두 배로 키우고 석주는 붓다의 위대함과 걸맞게 만들어 세우시오. 가지고 온 석주는 네 마리의 사자상이 정교하기는 하지만 이곳에 세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소. 나는 석주 위에 코끼리를 조각해서 얹히고 싶소."

아쇼까왕은 싯다르타 태자가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곳인 만큼 거대한 불탑을 조성하고 싶었다. 또한 마야 왕비가 하얀 코끼리 꿈을 꾸고 붓다를 잉태하였으므로 코끼리 형상을 조각해 석주의 연화좌대 위에 얹히는 장대한 것으로 세우기를 바랐다. 〈계속〉

